

금호타이어, 연비 · 내구성 향상 타이어 출시

금호타이어는 연비개선 타이어 KRS25와 내구성을 향상시킨 KRA11, KMD21 등 트럭용 타이어 3종을 8월 말부터 출시한다고 8월19일 발표했다.

신제품 3종에는 제품 용도에 따라 형상과 구조, 재료 등을 최적화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ICOS(Integrated Component Optimization System)라는 친환경 설계기술이 적용됐다.

대형 화물트럭 전륜용 제품 KRS25는 타이어가 노면과 닿는 부분에 신소재를 넣은 원료 배합물을 사용해 회전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만3000km를 주행해 연료비 80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대 288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중단거리 대형 화물트럭 전·후륜용 제품 KRA11은 타이어에 균일한 마모가 일어나도록 설계해 내구성 등을 향상시킨 것이며, 대형 덤프트럭 후륜용 KMD21은 N자형 디자인을 접지면에 적용해 비포장 도로에서 흙이 타이어 홈에 끼는 것을 막아준다.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설명회를 8월19일 대전을 시작으로 8월20일 부산, 8월21일 서울에서 실시하며 8월25일부터 전국의 대리점과 소매점을 개별 방문해 제품 설명을 하고 9월3일부터는 개인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관측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8/19>